

수산분야 현안,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지역별 생산자단체 간담회에 이어
유통업계 릴레이 간담회 시작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1일(목) 충남 보령에서 한국수산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주최한 충남권역 생산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하고 부산에서 유통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충남권역 생산자단체 간담회는 오는 6월 8일 보령에서 열리는 한국수산업경영인대회에 앞서 충남 지역 수산업계 당면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지난 4월부터 경남·제주·전남·경북 등 권역별 생산자단체 간담회를 이어오고 있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와 업계는 동반자 관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당면 현안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수산업계 경영 환경이 개선될 수만 있다면 원하는 장소는 어디든지 찾아가 현장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생산자단체에 이어 유통업계도 릴레이 간담회를 시작한다.

이번 자갈치시장 상인간담회에는 상인 20여 명과 부산시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송 차관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께 좋은 수산물을 대접한다는 일념으로 현재 모습과 규모의 자갈치시장을 일구어 주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라며, “수산물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드시도록 생산자부터 유통·판매자까지 ‘하나의 팀’이 되어 계속 소통하고 오늘 말씀하신 건의사항은 소상히 살펴보고 답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 차관은 6월 2일 노량진 수산시장, 6월 8일 인천종합어시장을 비롯해 6월 중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도매시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업계 현안을 듣는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구도형 (044-200-5440)
		담당자	서기관	김지혜 (044-200-5441)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수산물안전관리과	책임자	과 장	최장원 (044-200-5940)
		담당자	사무관	김수정 (044-200-5803)

